평준화고 정원 확대-학급 학생 감축 '상충'

인수위 백서 "과밀 학급·학급 증설 문제 동시 발생"
읍면 비평준화고 위축 우려도… "종합적 방안 모색"
'도민제안방'에는 29명 중 10명이 IB 지속·확대 건의

신임 김광수 교육감의 5개 영역 50개 과제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이 상위법에 따라 '축소' 내지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최대 확대'와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이 상충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는 지난 14일 김 교육감에게 전달한 뒤 15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17대 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행동하는 제주교육'에 담긴 내용이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과 마찬가지로 이 공약 역시 인수위에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공식 협의하는 등 검토된 사항임에도 변경 없이 50개 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이번 백서에서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 영역에 배치된 두 과제에 대해 '공약 간 상충 해소 필요' 의견을 달았다.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시 과밀 학급과 학급 증설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백서에서는 공립고 학급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립고 학급 확대 여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평준화고 정원 확대 시 비평준화고 학생 수 감소 우려 등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읍·면 지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결국 인수위는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종합적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지역별·학교 유형별 여건 고려한 학생 배치 기준 마련, 평준화고 학급 추가 증설과 과대학교 지원 방안 마련, 비평준화·특성화고 학생 정원 유지 방안 검토, 고교체제 개편 TF 운영을 통한 고입 전형 기본계획 수립,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검토 필요가 그것으로 공약 실현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백서에는 인수위 활동 기간에 이메일, 블로그 등으로 접수한 '도민제안방' 제안과 답변도 실렸다. 그 결과 29명(또는 단체)의 제안 내용 30여 건 중에서 10명이 IB 학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 제안자는 "IB 교육을 위해 한라초에서 제주북초로 전학하고자 하나 시내 중학교 확대 계획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면서 "제주북초 졸업생들도 IB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캐나다 유학 중인 중3 딸이 한국에 돌아오면 향후 진로를 표선고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제안자는 "앞으로 IB 교사 육성과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가 지속되고, 제주도 공교육 혁신의 바탕에 표선초·중·고가 뿌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인수위는 답변을 통해 "IB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도 유지·발전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현재 지정된 IB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가경찰 총경 3명 조기 원대복귀 자치경찰위 "기간 준수하라" 발끈

정기인사 앞둬 복귀 요구
"경력에 도움 안돼" 인식 커
자치경찰위 "잦은 조기 복귀 정책과장 업무 연속성 저하"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국가경찰 총경들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모두 '원대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에 임명된 조규형(47·경대 13기) 총경이 최근 국가경찰로의 조기 복귀를 요구했다. 파견 기간 1년을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한 채 원대복귀를 신청한 것이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으로 파견된 A총경과 B총경 역시 6개월가량만 머물다 국가경찰로 복귀한 바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의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등이다.

총경 3명의 복귀 시점을 보면 '인사'와 맞닿아 있다. 조기 복귀한 총경 3명 모두 '총경급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를 빠져 나온 것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계속 한솥밥을 먹던 동료가 아닌 행정·교육·자치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로의 파견은 부담이 된다"며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파견이 경력이나 인사 상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한 몫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조기 복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총경이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파견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파견된 총경 3명 모두 조기 교체됐다"며 "파견 총경의 잦은 조기 복귀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다. 후임 총경은 파견 기간 1년을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내일 새벽까지 비 온다
기상청 "최대 150㎜ 이상"

막바지에 접어든 장마전선이 제주에서 맹위를 떨치겠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는 17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 19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며, 산지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됐다.

특히 1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가 예상됐지만 기온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겠다. 19일까지 아침 최저기온 25~27℃, 낮 최저기온 29~32℃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됐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9일까지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며 "아울러 저지대 침수, 배수구 역류, 산사태 등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초복날엔 삼계탕 초복인 16일 제주시 한 음식점에서는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보양식인 삼계탕을 내놓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강희만기자

"동물과 공존하는 제주 만들자"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이하 유동네)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종식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 복지의 문제이고 법치주의와 관련된 문제로 개고기 생산업자들은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에는 적게는 40곳 많게는 약 80곳의 개농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약 2만마리의 개들이 고립돼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 죽어가는 상황을 제주도는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원희룡 전 지사 인척 연루? 모른다"

삼다수 온라인 판매 관련
제주개발공사 공식 입장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인척이 제주삼다수 온라인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주도개발공사가 온라인 판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와관련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온라인 채널에 대한 운영 및 온라인 대리점 선정은 제주삼다수 위탁운영사인 광동제약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선정과정도 광동제약의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삼다수 온라인 판매로 특정인이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의 이익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면서 "온라인 판매는 12개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삼다수 온라인 판매 물량 급증 사유는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환경에서 삼다수앱 고객확대, 무라벨 제품 출시, 빈페트병 회수시스템 도입 등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도출된 경영성과"라며 "제주개발공사 1000여 임직원은 도민들에게 부끄럼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